

투데이 칼럼

북한의 열병식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면서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 장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북한은 각종 최신 미사일들을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 행사를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하게 벌였다. 이는 모두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과거 북한이 벌였던 열병식들도 모두 어떤 의도들이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이 열린 지난 4월 25일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평양시 도로 위로 각종 군사 무기들이 출저어 늘어섰다. 김일성 광장에도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야간에 진행된 행사인 만큼 화려한 조명과 폭죽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열병식은 72개 중대,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최근 5년 간 열린 열병식 중 가장 큰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등장한 무기 역시 총 26종, 170대로 2019년 이후 개발된 최신의 전락·전술 무기가 총 망라됐다.

비슷한 시기의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은 비교적 조용히 넘겼다. 그러나 이번 열



정복규
논설위원

병식에는 각별한 공을 들인 것이다. 북한 최초의 열병식은 1948년, 정구군 창설식 때이다. 이후 주로 광복절

때나 열린 북한의 열병식은 1960년대 후반에 밝혀진 평양시 도로 위로 각종 군사 무기들이 출저어 늘어섰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9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사령관에 오르면서 이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규모도 커졌다. 이례적으로 육성 메시지를 남길 만큼 열병식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정은 남달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열병식을 자신의 첫 연설 무대로 삼았다. 집권 이후 첫 육성 연설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0년 동안 모두 11번의 열병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국명력을 선전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 가운데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반하늘을 화려하게 가로지르는 전투기와 형형색색의 불꽃놀이로 화려한 활영까지 했다. 특히 사상 최초의 심야 열병식이었다.

파격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도 이어졌다. 붉게 상기된 얼굴의 김 위원장이 울려라거나 안경을 벗었다 쓰며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 그대로 전파를 탔다.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병식 연설을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이번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도 형식과 내용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다양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열병식 자체가 주민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낮 시간, 퍼레이드와 카드섹션과 같은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를 치르는 대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

다는 의도다. 벌써 4차례 심야 열병식을 치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레이저 조명은 물론 야간 비행까지 능숙하게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 열병식을 방영하는 조선중앙TV의 제작, 편집 기술도 상당 수준 발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입고 등장한 흰색 원수복도 눈길을 끌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 평양에서 전승 열병식을 열었을 때 흰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충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흰색 원수복을 입거나 심지어 원수복에 백마를 타기까지 했다. 이렇게 공을 들인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

그는 어떤 대외적 메시지 보다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엔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열병식은 주민을 다독거리며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력 과시는 물론 최고지도자의 육성을 통한 대내외 메시지 전달의 무대가 되었다.

사설

임실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단

전북 임실군의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단' 이 '효자 작업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농작업 대행단은 관내 단 70세 이상 그리고 0.5ha 이하 소규모 경작을 하는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대행단은 로터리, 두둑, 비닐피복 작업 등을 대행한다. '사단법인 임·순·남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은 지난해까지 완료됐다. 그 뒤 임실군은 자체적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대행 수수료는 로터리, 두둑, 비닐피복 각 30원/㎡이다.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시중 가격의 절반으로 낮게 책정했다. 상반기 농작업 대행은 지난 5월 20일까지 128농가 17만 4594㎡의 작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실군은 이미 지난

2020년 보리 수확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한 바 있다. 총 18농가 20여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보리 수확량은 10a당 300kg으로 전년도 286kg보다 5% 증가했다. 수확된 보리는 오수·관촌농협에서 40kg당 3만원원에 수매를 했다. 특히 농작업 대행료는 10a당 40,000원으로 일반 시세보다 20%정도 저렴하게 책정했다.

심민 군수는 "많은 농가들이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작업 대행을 통해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농기계 문제도 해결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고령 영세농 농작업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고령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지방의원 무혈입성 문제

전북 도내에서는 전체 지방의원 선거구 가운데 24%에 이르는 민주당 후보자가 단독 출마했다.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혈입성한 것이다. 시장 군수 선거 또한 소수 정당 측 인물만이 전체 선거구 64%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이 격돌했다.

모두 209석(이하 지역구 기준)이 걸린 지방의원 선거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의 경우 광역 도의원(36석)과 기초 시군의원(173석) 선거구에 대부분 후보자를 냈다.

다른 정당 후보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이 가운데 도의원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후보자가 각각 1명씩(익산 1·전주4) 등극한 것이 전부다. 무소속 후보자는 12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통틀어 1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정의당 5명, 진보당 3명 순이다. 결국 경쟁률은 평균 2대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특히 민

주당 측에선 단독 출마로 인한 이른바 무투표 당선 사례가 쏟아졌다.

무혈입성이 기정사실화 된 도의원 선거는 전체 67%(24석), 시군 의원은 전체 17%(27석)에 달했다. 후보자 영입에 실패한 소수 정당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전북 도내의 경우 집권 여당 단체장은커녕 지방의원조차 전무할 정도로 참담했다.

수 십 년 간 지속돼온 민주당 독주 체제를 끝내야만 지역도 변하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소수정당 후보자들도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282명의 당선자가 선거 없이 확정됐다. 서울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에 등극한 후보자 541명 중 107명(19.8%)이 선거 없이 당선 확정됐다. 이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표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 기념 공연하는 배우들



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표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을 기념해 재연 배우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일본, 10일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 받기 시작



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지구 쇼팽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을 위한 안내 스태프를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부터 단체 여행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